

내일부터 20대 대선 관련 여론조사 ‘블랙아웃’... ‘깜깜이’ 선거전 시작

여론조사 공표·보도 금지...선거 막판 표심 읽기 어려워

오는 3일부터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나 보도가 금지되는 이른바 ‘블랙아웃’ 구간이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대 대선 선거일 6일 전인 3월3일부터 선거 당일 투표마감 시각인 3월9일 오후 7시30분까지 해당 기간 동안 실시한 정당 지지도나 후보자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다고 1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108조는 ‘선거일 전 6일부터 투표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보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결과가 투표자로 하여금 승산이 있는 후보에게 가담하게 하는 ‘밴드왜건 효과’나 열세자 편을 들게 하는 ‘언더독 효과’ 등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진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러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결정적으로 해칠 가능성이 높음에도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도 고려한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기간 전인 오는 2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는 조사시점을 명확히 밝히면 블랙아웃 기간 동안에도 공표나 보도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이달 1~2일 실시한 여론조사는 점을 발표시에 명시한다면 오는 3일 이후에도 공표와 인용 보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민심의 흐름을 분석하기 어려운 ‘깜깜이’ 선거전에 돌입하게 된 여야는 초반병 접전 상황 속에서 막판 표심 잡기 전략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역대 선거에서도 여론조사 공표·보도가 금지되는 막판 6일 동안 출렁인 표심이 선거 결과를 좌우한 사례가 적지 않다.

선거 일주일 앞둔 20대 총선이 대표적이다.

지난 2016년 4월4~6일까지 한국갤럽이 전국 만19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는 새누리당이 39%, 민주

당 21%, 국민의당 14%, 정외당 5% 등이었다.

당시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새누리당의 예상 의석을 ‘150석+α(알파)’로 보는 결과들이 많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새누리당이 122석으로 민주당보다 1석이 뒤져 원내 1당을 내준 바 있다.

김재환기자



3·1절 기념 선거 참여 퍼포먼스 3·1절을 하루 앞둔 28일 오전 광주 북구 공직자들이 청사 앞 광장에서 투표 용구 ‘1’을 형상화한 대형 태극기 등을 이용해 3·1절 기념 선거 참여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넉달 만에 멈춘 방역패스

“번거롭던 QR 안찍어도 돼” 손님·업주 환영

식당·카페 방역패스 잠정 중단
 “QR코드 ‘당연’ 여겼는데 어색”
 “편하긴한데 코로나 확산 걱정”

정부가 넉 달 가까이 이어오던 코로나19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첫날인 1일, 식당 업주와 손님들은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1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등 11종에 적용하던 방역패스가 이날 오전 0시를 기준으로 잠정 중단됐다.

정부는 일상회복을 선언한 지난해 11월 유흥시설 등을 대상으로 방역패스 의무를 처음으로 도입했고, 지난해 12월 초부터는 식당과 카페 등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 등에 따라 확진자 규모가 폭증하자 지난달 19일 QR코드 등 출입명부 의무화를 중단했고, 이날부터는 방역패스도 사실상 해제했다.

현재 QR코드 인증을 켜면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 변경에 따라 3월1일 0시부터 QR체크인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안내문이 뜬다.

또한 식당과 카페 등 대부분 가게에서는 방역패스를 위해 설치했던 QR코드 인증용 태블릿PC나 휴대전화를 치우고, 방역패스 안내문

도 제거했다. 서울 종로구에서 김밥집을 운영하는 정모(54)씨는 “매번 손님들이 들어오면 QR코드를 인증해야 한다고 안내하는 것이 번거로웠는데 안 하니 마음이 편하다”고 말했다.

카페 아르바이트생 이모(26)씨는 “손님들이 오시면 QR코드를 인증하는지 지켜보고 가끔 실랑이도 있었는데 방역패스가 중단돼 일하기가 훨씬 수월하다”고 전했다.

자영업자들이 자주 찾는 온라인 카페에서 한 자영업자는 “지긋지긋한 QR코드가 이제야 끝난다”라며 “손님들이나 사장들 서로 불편했다. 이제 영업제한이나 빨리 풀어주면 좋겠다”고 글을 올렸다.

또 다른 자영업자는 “방역패스를 신경 안 쓰니 조금 여유가 생긴다”고 댓글을 달았다. 일부 자영업자는 방역패스를 하지 않아도 되는 지 묻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직장인 윤모(33)씨는 “이제는 어디든 들어가면 QR코드 인증하는 게 당연하다고 느껴졌는데 안 하는 것이 어색하기도 하다”고 했다.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박모(35)씨는 “방역패스가 없어져서 편하긴 한데 코로나 확진자가 20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걱정은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광주·전남 일주일째 7000명~8000명대 확진

광주·전남에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하루 확진자 수가 일주일째 7000명~8000명대를 기록했다.

(관련기사 8면)

1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전남 발생한 확진자는 광주 4806명·전남 3283명 등 8089명이다.

광주·전남은 오미크론 영향으로 지난달 들어 확진자가 폭증했다. 지난달 22일엔 7308명(광주 4225명·전남 3083명)으로 처음 7000명을 넘어섰다. 지난달 24일엔 8137명(4604명·3533명), 지난달 25일엔 8320명(4883명·3437명)이 확진됐다.

지난달 22일부터 전날까지 일주일째 7000~8000명대를 기록했다.

전남 광주에서는 요양병원 감염병 취약지를

중심으로 확산세가 이어졌고, 가족·지인·직장 동료 간 접촉성 감염도 끊이지 않았다.

전남에서는 전남 22개 시·군 전역에서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지역별로 목포 582명, 여수 500명, 순천 494명, 광양 235명, 무안 233명, 나주 201명, 화순 199명, 영암 150명, 해남 91명, 강진 77명, 영광·담양 각 64명, 장성 62명, 장흥 57명, 완도 56명, 함평 42명, 고흥 39명, 진도·보성 각 33명, 구례 30명, 곡성 28명, 신안 13명이다. 감염 경로는 기존 확진자 접촉 50.3%, 조사 중 44.3%(불분명), 다른 지역 확진자 접촉 2.5% 등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 오미크론 검출률은 90%대로 추정된다.

박남진기자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20대 대통령선거

한 표의 무게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듭니다

선거일 투표

3월 9일(수) 오전 6시~오후 6시

코로나19 확진·격리 유권자: 오후 6시~오후 7시 30분

※ 단, 농산어촌 거주 교통약자인 확진·격리 유권자는 관할 보건소 허가 시 오후 6시 전 투표 가능

사전투표

3월 4일(금)~5일(토) 매일 오전 6시~오후 6시

※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